

목포시, 굵직한 공모사업으로 발전 지렛대 마련

3대 전략산업·문화예술·대규모 공모사업 연계 육성

지난해 관광거점도시 등 57건 국도비 1378억원 확보

목포시가 굵직한 공모사업으로 발전의 지렛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재정에 여유가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시 발전전략을 공모사업과 연계한다면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강점과 특성을 활용해 비교우위를 부각하고, 선정 가능성을 높일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고 목적의식적인 전략 수립에 집중

해왔다. 이를 위해 부서별 협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융역 이행, 전문가 컨설팅, 프리젠테이션 리허설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결국 이런 노력들은 지난해 5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37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역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3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이 두드러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의 1차 관문을 통과한 것도 눈에 띈다.

시장은 대한민국 4대관광거점도시였다. 지난해 1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목포는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천억원(국도비 7백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

됐다.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계획해온 목포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4월에는 오는 2024년까지 450억원(국도비 304억원)이 투입될 ‘전기추진 차도선 및 전원시스템 개발·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남향에 친환경선박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2월에는 고하도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앞서 달리도와 외달도(이상 2019년), 울도(2020년)가 선정돼 목포는 관내 모든 유인도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미는 12월 24일 발표된 예비문화도시 선정이다. 목포는 예향의 역할을 집중해 2022년부터 5년간 2백억원이



투입되는 법정문화도시의 이전 단계인 예비문화도시에 낙점됐다.

이 밖에도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촉매가 될 전라남도의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도비 50억원), 안전통합센터의 CCT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해 긴급상황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국비 6억원) 등

에 선정됐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해는 목포 발전의 속도를 앞당길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돼 의미가 특별했다. 선정된 공모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와 문화관광이 꽃피는 대한민국 대표 지방강소도시, 문화관광도시로 변화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농공단지 분양가격은 ㎡당 103,620원(평당 34만 2천원)으로 지난 주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몽탄특화농공단지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산강강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만큼 식료품, 음료제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 몽탄특화농공단지 4만7천여㎡ 분양 실시



식료품·음료제조업 입주 분양가격 평당 34만 2천원

무안군은 몽탄특화농공단지 준공을 앞두고 이번 주 입주업체 모집공고 후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을 가공 생산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여 식품특화단지조 개발하기 위해 조성하였

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총사업비 86억 원(군비 57억 포함)을 투입하여 이달 말 준공인가를 앞두고 있다.

개발규모는 89,718㎡이며, 분양용지는 산업용지 및 지원용지를 포함하여 17필지 47,521㎡로 식료품, 음료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하고 도축업 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격은 투입된 군비에 분양면적을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데 타시군 농공단지 분양가격 분석결과와 조성원가를 낮추어 분양한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율이 높았으며, 조성원가

영광=서희권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자치분권 챌린지 동참

신안군은 12일 자치분권 2.0시대 준비를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우량 군수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광양시 정현복 시장로부터 지정을 받아, 12일 집무실에서 “신안군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이 새겨진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에 대한 신안군민들의 열망을 전하였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리법 등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 등 자치분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기동취재본부

영암 서호면, 환경정비 최우수마을 선정

영암군 서호면은 군에서 실시한 환경정비 평가에서 송산마을(이장 전철희)이 환경정비 최우수마을, 아천(이장 정영길), 백운동(이장 이화섭)마을이 우수마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에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1개 읍·면 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가꾸기의 날 운영실적과 영농 폐비닐 수거 및 마을주변 정화활동 등 자율적인 마을 환경정비 활동사항에 대

해 현지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특히 서호면 소상리 송산마을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폐지, 공병(농약병), 비닐, 고철 등을 수집하고 마을 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주변에 환원하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매주 1회 마을정화 활동 및 마을가꾸기(꽃길, 재활용수거함, 문패제작, 향아리조각공원)를 진

행하여 최우수마을로 선정, 상사업비 2천5백만원을 받았다.

서장옥 서호면장은 환경정비 최우수마을 및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 이장에게 축하와 그동안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사업비 청 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 환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